2026-02-23

COMMENT

전략 COMMENT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주식시장 영향 제한적

주식전략. 강대승 / ds_kang92@sks.co.kr / 3773-9122

Signal: 미국 대법원 상호 관세 위법 판결
Key: 정책 기한 설정으로 미국 기업의 선제적 수입 확대 가능성 존재
Step: 품목 관세 부과 가능성 언급된 반도체, 폴리실리콘 등 관심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의지 확인 이벤트

미국 대법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을 고려한다면 이번 판결은 관세의 중단 보다는 부과 시점 연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무역법 122 조를 근거로 15%의 긴급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고, 동시에 301 조 조사 개시 계획을 공식화했다. 또한 Section 232 조에 의거 추가 품목관세 부과를 위한 관련 조사 역시 병행되고 있다. 관세는 철회된 것이 아니라, 150 일 이후 보다 구조화된 형태로 재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결과 발표에도 미국 주식시장이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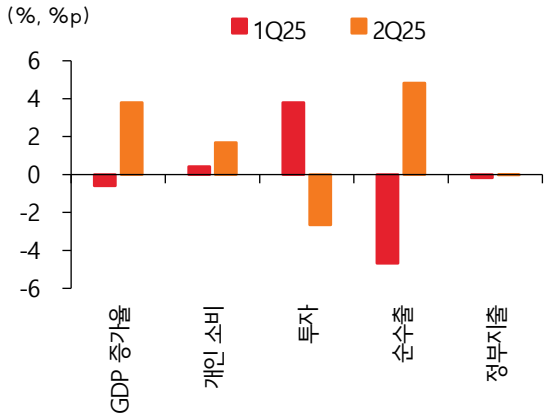
정책 기한 설정은 미국 기업의 선제적 수입 확대로 연결될 가능성 존재

정책 불확실성은 통상 투자 위축을 초래하지만, 정책의 기한 설정은 오히려 기업의 행동을 앞당긴다. 관세 부과 의지를 확인한 상황에서 기업의 선택지 중 하나는 수입을 앞당기는 것이다. 이미 2025 년 1 분기, 트럼프 취임 직후 232 조 발동과 일부 국가에 대한 관세 발표 이후 미국의 수입은 급증한 바 있다. 이는 정책 자체보다 '정책이 시행되기 전'이라는 시간적 조건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이번 150 일 역시 유사한 구조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주식 시장 영향은 제한적, 초점은 232 조 논의 품목

투자 관점에서 고려해볼 아이디어는 232 조 하에서 추가로 논의되고 있는 품목들에 대한 선행 수입 확대 가능성이다. 상호관세 관련 판결은 한국 주식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율 15%는 한국의 기존 상호관세율과 같은 수준이다. 통상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은 마진 압박 해소를 위한 비용 전가 혹은 가격 인하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즉, 전반적인 한국의 대미 통상 환경이 완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판명된 만큼 행정부가 우회 경로로 232 조 및 301 조 조사를 가속화할 유인이 존재하며, 이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을 유도할 수 있다. 현재 논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반도체 및 제조 장비, 폴리실리콘, 의료 장비·기기 등은 정책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구간에서 단기적인 선적 가속 수요가 나타날 수 있는 영역이다.

25 년 미국 GDP 연율화 증가율 및 부문별 기여도



자료: Bloomberg, SK 증권

미국 구리 가격 232 조 선제적 대응에 급등락

자료: Bloomberg, SK 증권

COMPLIANCE NOTICE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판단 3 단계(6 개월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